



구들의 발달과 문화적 가치 소고

이 논문은 구들학회가 지난 11월 24일 개최한 제6차 구들학회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발췌, 편집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최영택 / 구들학회 회장 · 현대전자구들 대표이사

처음말

구석기시대부터 불의 이용으로 구들이 발달된 이래 오랜 시대에 걸쳐 발달된, 불가사의한 구들의 발달을 논한다는 것은 만용이라 할 수 있다.

구들은 우리 민족이 전승받아 사용하고 있으므로 우리 민족에 의하여 발달되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문헌상의 구들이 구조와 과학적 기능인 현존 구들로 발전하는데 약 2000년이 되었으니 지식이 미개발된 상태의 원시인이 불을 획득하고 불을 이용하여 구들을 만들기까지는 이보다 수십배의 시대가 소요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여도 무방하겠다. 따라서 구들은 구석기 시대에 발달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구들이 발명되어 가족을 이루고, 부족이 모이고, 민족이 형성되고, 국가가 성립되었으니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을 것이다. 이처럼 구들이 모든 민족문화 원류의 원천적인 역할을 하였으므로 더 없이 귀중한 것이다.

위대한 민족문화 유산을 전승받은 우리가 잘 가꾸지 않고 등한시하여 멸실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로, 석빙고와 더불어 유네스코의 인류문화 유산으로 등록하여 잘 보존,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더 나아가 구들을 현대화시켜 기술개발하여 세계화해 나간다면 바다난방 시장 수용에 독점적 공급국이 되어 구들문화를 수출하는 바람직한 방향이 설정될 것이다.

1. 불 이용 유적

구들이란 불을 이용하여 몸의 따뜻함을 얻게 하는 난방의 한 방법이다. 따라서 구들은 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구들의 발달 발달을 말하고자 할 때는 먼저 불에 관하여 말함이 마땅하고, 또 불을 말함에 있어서는 불이 필요한 사람과 이유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순서라고 할 수 있다.

한민족은 인류발상지인 아프리카에서 극동으로



유동(流動)하였다고 본다.

이 유동경로로 볼 때 흑한지역으로 불 이용 및 구들이 발상될 수 있는 필요하고도 충분한 이유이다. 인종, 민족, 국가를 막론하고 불을 잘 이용하는 경우는 흥하고 그렇지 못하면 망하게 된다. 가까운 1, 2차 세계대전에서 불(火藥)로 전쟁을 일으키고 불(원자탄)로 전쟁을 끝내게 되었던 사실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전쟁을 일으키는 쪽은 미리 많은 불을 준비하고 불이 약하면 전쟁에 지게 된다.

화약이나 원자탄은 고도의 과학발전으로 인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옛날에는 여러 가지 화공(火攻)의 방법으로 불이 이용되었고 개인 대 개인으로부터 부족 혹은 국가도 불을 세력장악의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원시인이 불을 발견하면서 문명화가 되기 시작했다.

인류의 불 이용에 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 견해차가 있으나 대체로 구석기시대 중기 경에 불을 얻어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인류가 최초로 불을 이용한 시기는 이보다는 훨씬 더 앞선 시대라고 믿고 있다.

불을 사용한 유적으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주구점 동굴 유적(중국 황하 하류, 周口店洞)에서 발굴한 약 100만년전 원시인의 두개골 화석(북경인) 및 부뚜막 모달불을 피운 자리를 발굴한 것으로서 이는 구석기 시대 전기 이전에 해당된다.

2. 태양을 향한 동진류동(東進流動)

그러면 이 원시인(북경인)은 어디에서 왔으며 불을 어떻게 얻었는가? 이것은 불을 이용한 구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인류학자들에 의하면 중국 동

부, 요동, 만주, 한반도 등의 지역에는 170~200만년 전부터 이미 원시인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아마도 이들 후손의 두개골이 주구점 동굴에서 발굴된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겠다.

고문헌 등에서 우리 민족의 조상을 동이(東夷)로 기록하였고 동이족을 도이, 우이, 래이, 개이, 근모이, 화이, 서용 등으로 분포 지역에 따라 여러 부류로 나누었으나 이는 언어학적 견지에서 보아도 모두 중국 대륙의 동부인 양자강 하류부터 황하 하류 지역에 고루 분포하였던 것으로 믿어진다. 즉 중국 내륙인 서안지역에서 남, 서, 북쪽에서만 그들 중국인의 분포지역이고 동부는 동이족의 영지였던 것이다.

이들 동이족은 만주에서 남하하였고 만주나 한반도의 동이족과 같은 부족이다.

중국대륙의 동이족 및 한반도의 동이족은 만주에서 남하하였고 만주의 동이족은 후룬지(吼倫地), 바이칼호, 초원의 길, 카자흐, 알타이, 카스피해 및 흑해 연안으로부터 오랜 시대와 긴 거리를 연쇄적으로 뒤를 이어 유동하여 도달한 것으로 믿어진다.

이 동진유동(東進流動)하는 지역은 여름에는 많은 종류의 철 짐승이 살다가 겨울철에는 따뜻한 남쪽으로 옮기는 짐승이나 새가 있어 원시인이 먹이를 쫓아 여름에 북부지역에 왔다가 너무 깊이 들어가게 되어 겨울을 만나 먹이 없는 흑한 동안 유동하게 되었을 것이다.

겨울은 낮이 짧고 밤은 길고 추우며 많은 눈으로 행동이 제한받게 되고 밤에는 햇빛이 있는 낮을 기다리게 되며 해가 뜨는 동쪽으로 더 가까이 가서 햇빛을 만나기 위한 동진유동이 시작되고 몇백만년을 계속하여 연속적인 유동이 계속되었으며 동사, 동상 등으로 많은 희생이 따랐으나 생존자만이 만주에 도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일부는 만주에서 계속 동진하여 알래스카, 북미,



남미까지 유동하여 에스키모, 인디안, 멕시코, 인디오 등이 되어 먼 훗날 시대의 문명고 만나게 되고 만주에서 남하한 부류가 동이족이 되었다.

3. 불의 발견, 취난(取煖)으로 구들문화 발상

만주에서 남하한 동이족은 산불에서 불을 얻었기 때문에 동사하지 않고 남하할 수 있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들은 생존방식과 지혜가 축적되어 구석기, 토기, 청동기 등의 독창적인 문화를 이룩하여 우리 문화의 기틀을 형성할 수 있게 하였다. 우리 문화의 독특하고도 독창적인 문화는 불의 문화이며 구들 문화이다.

낮에는 태양 빛으로 몸을 녹이고 밤에는 불을 피워 몸의 일부를 따뜻하게 하는 것에서부터 구들을 만들 수 있게 하는 방식인 돌에 열을 저축하는, 즉 축열하는 방법이다. 축열된 돌을 몸에 품거나 불 피운 자리에 앉거나 누워서 취난(取煖)할 수 있게 되므로써 구들이 발명되었다.

이 동진유동 루트는 춥고, 바람이 강한 산악지대로서 나무가 마찰되어 산화가 일어날 수 있어 산불에서 불을 얻어 모닥불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며 화산 등에서도 불씨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모닥불씨를 지피우면 강한 바람에 불이 꺼지기 쉬우므로 바람막이 돌을 세워 놓게 되고 그 돌이 축열되면 몸에 품거나 또는 불탄 자리의 땅도 축열되므로 몸을 따뜻하게 할 수가 있어 동사하지 않고 생존할 수 있었다.

4. 뚜껑돌이 구들의 효시와 민족을 형성

불씨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은 모닥불이 비나 눈

으로 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뚜껑돌을 얹게 되었고 이 뚜껑돌이 구들의 효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이것이 외구들이며 구들의 발상이다.

주위에 세운 돌짚을 흙으로 막아 쌓아 올려 뚜껑돌과 같은 높이로 평평하게 하고, 연기를 한쪽으로 빠지게 하여 한쪽에서 불을 연속적으로 피우게 발

전시키고, 경험을 통해 더 길게, 더 넓게 하므로써 여러 시대에 걸쳐 지금의 구들을 완성한 것이다. 단독 행동의 원시인이 불을 얻어 가족이 헤어지지 않게 되었다. 구들로서 무리가 이루어지고, 그 무리가 커져 부족이 형성되고, 부족이 국가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이다. 따라서 숙신(肅愼), 부여(夫餘), 진(晉) 등 고대국가로 발전되었다. 부여에서 고구려가 도출되어 국가 형태를 갖추면서 남해 중국 북부(동이족의 古地) 및 만주에서 고구려가 건국되었다.(고구려의 건국 연대는 미상)

남쪽에서는 진에 이어 삼한이, 삼한에서 신라, 백제가 늦게 건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5. 우리 생활을 땅굴에서 땅위로 꺼내 올려 준 구들

구들 문명이 동굴이나 땅굴 생활하는 원시인을 땅 위로 올라오게 하여 땅 위에 움막집, 귀틀집을 짓고 발전하게 된다. 다시 초가에서 민족의 독특한 건축 양식인 기와를 얹은 한옥으로 발전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과학적이며 쾌적한 주거로 발전시킨 것이다.

우리 민족은 집 속에서 불을 피우는 구들문화를 발달시켜 한옥은 구들을 보호하고 집은 사람을 살게하므로써 민족문화 발달의 원천적 구실을 한 것이다.

원시시대부터 불 및 구들과 우리의 생활이 밀착



되어 계승되었고 독창적이며 독자적인 우수한 민족성이 형성됨은 물론 따뜻한 정서로 인해 가족제도가 형성되어 독특한 의식주(衣食住)의 문화를 발달시켰다.

6. 계승된 식문화와 불씨보존

구들은 취난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식문화(食文化)에 절대적인 원천적 영향을 미쳤다.

원시시대 먹다가 남은 먹이는 나무 위에 걸어 말리거나, 얼리거나, 빼앗기지 않고 다시 먹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을 터득하였다.

먹이가 얼어 돌같이 굳으면 불로 해동시켜 먹게 되는 바, 지나치게 구우면 태워 먹게 되는데 이것이 불고기, 군밤, 군고구마, 생선구이 등으로 발전되었다. 지금도 야외에서 돌에 고기를 구워 먹거나, 돌솥밥 등으로 애용되고 있는 것도 구들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북어·오징어 등을 말리거나 얼게 하여 구워먹는 습성도 구들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겠다.

특히 최근들어 우리의 불고기와 김치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진가가 잘 알려져 있다. 또한 그 맛과 영양가 면에서 과학적이며 우수함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은 우리의 식문화가 이미 오래 전부터 선진화되어 있었음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혹한으로 돌같이 얼어붙은 고기를 불에 녹여 먹거나 구워 먹는 방법과는 달리 외구들 솥불에 언 고기를 얹고 나뭇잎을 덮고(단열) 그 위에 흙을 덮어 공기가 소통되지 않게 밀폐하여 여러 시간이 지나면 고기맛을 달리하는, 이른바 불무덤에 찌서 먹는 방법도 있다. 여러 시간 후 이런 불무덤을 헤쳐 열었을 때 불씨가 남아 있는 것으로 불무덤이 불씨

보존의 방법이 되어 화로에 솥불을 넣고 재로 덮어 불씨를 보존하는 방법은 우리 민족의 오래된 관습이다. 따라서 부엌에는 불을 사용하는 집 안주인의 가장 중요한 의무와 책임으로 대대로 인계 인수되어 현재에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이 시간 현재도 계속 이 관습을 갖고 있는 가문도 있다.

7. 백의 민족의 옷 문화

원시시대는 짐승의 털가죽 옷을 입다가 농경이 시작되면서 베옷, 모시, 광목, 명주 등으로 옷을 만들었다. 남자는 삼베, 목화 등 원자재를 재배하고 여자들은 실을 뽑고 옷감을 짜서 계절에 맞는 여름의 삼베옷, 모시옷과 겨울에는 솜옷을 만들었다.

삼국시대에는 독특한 방법으로 염색하는등 2차 세계대전까지 우리 옷의 독특한 형식으로 많은 종류의 옷이 다양하게 개발·전승되었다. 여성들에 의하여 질삼, 양잠, 바느질 등 우리 옷 문화가 갖에서 신발 등까지 독특하게 발달 계승된 것도 구들에서 이루어졌다.

8. 우리 살림집 문화

동굴이나 땅굴 또는 움막에서 살다가 불을 이용하여 구들을 만들게 되어 귀틀집을 지어(불과 20~30년 전까지만 해도 태백산맥의 화전민은 귀틀집에서 살아왔고 아직도 귀틀집에서 살고 있기도 하다) 살면서 독특한 우리 살림집을 짓게 되었다. 즉 초가집에서 기와집을 짓고 살아왔으며 모두 진흙, 돌을 이용한 목 구조로 되어 있다.

모래물다짐, 진흙강화돌다짐, 자갈돌다짐 등을 한 위에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세우고 하, 중, 상방



을 괴고 도리를 엮고 보를 걸친 위에 대공을 세우고 바로 잡아 썰기를 고정하고 용마루를 걸치고 서까래를 걸고 신호대로 고정한 후 서까래 위에 산재로 덮고 그 위에 진흙으로 덮고 기와를 얹은 후 벽에 외를 엮어 초벽 맞벽 주열 마감바르기를 하고 미닫이, 여다지, 문을 달고 창호지를 붙인 것이다.

그 기능은 현대 과학으로 보았을 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한다. 볏짚 등은 단열효과가 우수하여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구들이 따뜻하게 하여 생활을 쾌적하게 하여 준다.

구들이 밥짓는 여열을 저장하고 아궁이부터 구새까지 열흐름을 자연현상으로 조절, 방열하여 실내에 방열하는 가장 과학적인 시스템으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에너지가 절약되고 벽·문창·지붕 등이 단열구조로 되어 있어 열에너지를 도망가지 못하게 오랫동안 가두어 난방하므로 에너지가 절약되는 축열방식 바닥난방기술인 것이다. 구들난방은 인류사상 가장 일찍 기록된 발명기술이다.

9. 가장 중요한 안방 아랫목은 안주인의 자리

한국 사람은 아랫목에서 태어나 자라고 늙어 병들면 이곳에서 치료하다가 죽으면 아랫목을 떠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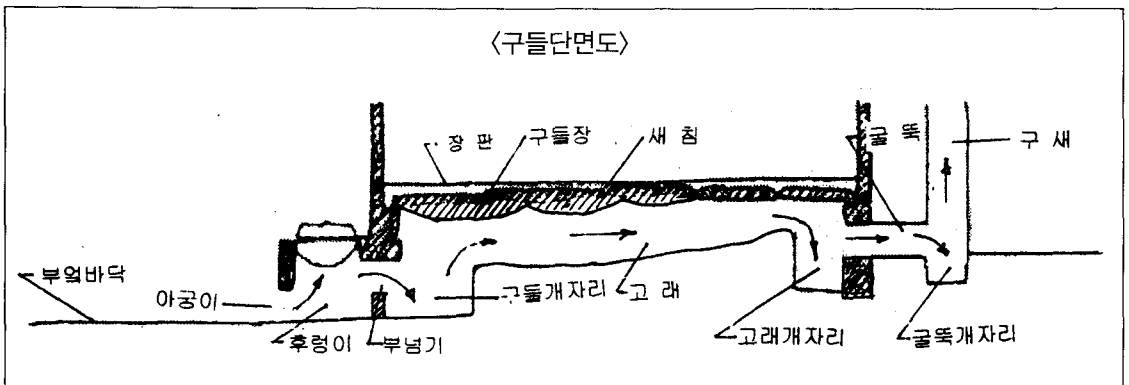
다가 제사상, 차례상도 아랫목에 다시 와서 받는 곳이므로 살고 있거나 죽은 후에도 아랫목과 밀착된 인생이다.

아랫목에는 늘 차렵이불을 깔아 놓아 따뜻하게 하고 손님이 오거나 밖에 나갔던 식구가 들어오면 아랫목에 앉기를 권하고 밖에 나간 식구의 밥도 차렵 이불 속에 묻어 늘 따뜻한 식사를 하게 한다. 길쌈, 바느질, 다듬이질, 반찬거리 다듬기 등도 이 아랫목에서 하는 등 아랫목은 안주인의 자리이다. 집안 식구의 의식주나 예의범절 등 모든 것을 잘 간수하여 안전하게 보호하는 안주인의 자리이다.

10. 도기·자기 제작의 원천이 된 구들

구들은 그 구조가 독특한 난방방식으로 거의 무한의 고열을 축적할 수 있는 장점으로 하여 토기 제작의 원천적인 구실을 하였다.

구들은 돌과 진흙으로 되어 있다. 진흙은 점성이 우수하고 밀도가 좋으며 물에 반죽하여 가열되면 돌과 돌을 견고하게 결합시키고 불을 먹으면 그 자체가 돌같이 견고하게 되기도 하고, 묽은 진흙 상태에서 모양을 만들어 구들불에서 가열하여 원시시대 심심풀이로 토우 및 토기를 만들 수 있게 하였다.





불무덤으로부터 토기를 구울 수 있게 되자 불무덤과 구들이 발전하여 요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요로의 구조는 구들처럼 바닥이 고래로 되어 있고 진흙과 돌로 불무덤을 쌓아 축열을 많이 하게 되어있으며, 아궁이 및 굴뚝 등이 구들 그대로이다. 다만 구들장 대신 고래에 토기를 얹어 놓고 가열하여 장시간 밀폐하여 굽는 것이다.

이런 토기 제작 기술이 무문토기, 빗살무늬토기에서 다시 고려자기 같은 세계적인 명품을 만들 수 있게 하였다. 또 도가니를 이용하여 청동기, 철기시대를 거쳐 세계 최초의 철활자를 발명하게 하였다.

우리들의 청동기 문화는 토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토기 재료의 불순물인 이물질 즉 동 등이 걸러져 청동기 문화가 이루어졌다고 믿어진다. 따라서 우리 청동기 문화는 다른 데서 배우거나 유입된 것이 아니라 구들의 경우와 같이 구들에서 파생되어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발전한 것으로 믿어진다. 우리 민족의 조상들이 분포되었던 땅의 어디를 발굴하여도 토기조각이 나올 정도로 토기 유물이 많은 것은 그만큼 잘 진흙에 관한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불무덤은 원시시대의 불 보전의 한 방법이었다. 추운 지방의 나무는 견고하여 숯불도 더 오랫동안 피어 있을 수 있으므로 불을 피워 숯불이 많을 때 풀잎을 숯불 위에 덮어 씌어 단열하는 풀 층을 이루고 풀에 불이 붙어 타기 전에 빨리 흙을 덮어 밀폐시켜 공기와 열의 유통을 차단하여 불 주머니를 형성하는 것으로 오랫동안 불씨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다. 수십년 전만 해도 시골에서는 화로불에 재를 덮어 씌우고 잘 다지면 5~16시간은 충분히 불씨를 보존하는 방법을 집집이 이용하여 왔던 것이다.

토기요로의 구조가 구들고래와 비슷하고 불무덤 원리로서 토기제작이 구들 기술에서 도출된 것으로 믿어진다.

11. 구들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한옥

우리 민족의 집은 건축양식과 재료가 방한적 요소로서 구성되어 있고 원시시대의 동굴 또는 혈거(穴居)생활을 거쳐 지상으로 올라오게 된 것으로서 구들의 발달이 없었으면 지금까지도 열대지방 사람들의 나무 위에 만든 공중에 떠 있는 등지집 같이 땅속에서 땅굴 생활로 문화가 발전할 수 없었을 것이다.

땅굴을 깊이 파 그 위에 통나무를 걸치고 갈대(억새풀·새초)를 두텁게 덮어 지붕을 삼고 지붕에 여닫는 문을 만들어 사다다리로 출입하고 살다가 바닥 중앙에 불을 피워 난방 하였다. 땅굴을 깊게 파지 않고 땅굴집에서 구들을 만들게 되면서 지상으로 올라와 귀틀집을 짓게 되었다. 기둥을 세울 수 있게 되면서 현대 한옥구조를 구성한 한옥을 지어 근세적인 독특한 한옥을 지어살게 되었다.

우리가 사는 땅은 추운 곳이므로 추위를 막기 위한 진흙과 나무 등 자재가 내한 구조로 되었다. 또 바닥이 구들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바닥, 벽, 천장 등이 땅굴과 같은 진흙으로 되어 있는 숨을 쉬는 구조로 되어 있어 사람 살기에 알맞으며 사람을 잘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이다. 따라서 구들이 없는 집은 사람을 보호할 수 없으므로 결국 집은 구들 보존을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2. 독특한 구들난방 문화적 가치 키

외구들이 발전하여 구들로 난방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땅 밑에서 지상으로 삶을 옮길 수가 있었다.

지상에 집을 지어도 바닥과 구들 천장은 진흙을 덮고 바르고, 벽은 외를 엮고 초벽, 말벽, 재벽, 마감사벽 등 실로 동서남북, 바닥천장 등 모두 두터



은 진흙으로 되어 있어 땅굴과 다를 바 없는 보온, 방한 구조로 되어 있다. 집은 구들을 보호하고 구들은 사람을 따뜻하게 하여 주는 절묘한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한옥은 구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구들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 준다. 장마철의 습기는 진흙이 흡수하였다가 건조하면 방출하여 방의 습도를 조절하여 준다. 땅에서 올라오는 습기는 구들 고래가 막아주고 겨울에는 지열을 고래가 저장하여 준다. 문창은 미닫이와 여닫이에 덧문의 삼중구조이며 창호지로 공기를 적절히 환기시켜 주고 문풍지로 급격한 한기의 유입을 막아준다.

침으로 훌륭하고 과학적이며 살아있는 주거문화이다. 한민족은 앉은 자세가 꼬아있는 독특한 좌위(座位)이다. 이 좌위는 아메리카 인디언과 같다. 중국 사람은 의자에 좌위(座位)하고 침상에서 잔다. 일본 사람은 다다미 위에 꿰어 앉는다. 높은 사람은 한국식 좌위를 한다.

앉는 자세로 볼 때 한국 사람이 앉아 있을 때는 몸이 가장 많이 구들에 닿는다. 이는 구들이 따뜻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구들과 몸의 부분이 접촉되는 자세이다. 즉 앉는 자세부터 우리는 다른 종족이나 민족과는 독특하게 다른 것이 안정적인 자세이며 구들문화의 영향이다.

구들이 몸에 닿아 따뜻함을 주는 그 쾌감은 다른 난방에서는 도저히 맛볼 수 없다. 서양 난방은 천장만 따뜻하게 가열하는 비과학적·비경제적인 난방인 반면 사람의 몸은 항상 찬장이 아니라 추운 바닥에 있게 되어 의자, 침대 등 땅에서 떠있는 불안한 상태에 있고 베치카, 난로 등이 인체의 측방에서 인체의 부분을 가온하게 된다.

우리가 요를 깔고 누우면 구들의 열을 요에 축열하여 혈액순환이 불량한 등, 허리, 다리 등 몸의 많

은 부분은 직접 따뜻하게 하여 주고 이불은 더 넓어 구들에서 나는 열을 모아서 축열하여 바닥에 닿지 않는 가슴, 배, 무릎, 발 등 몸의 부분을 따뜻하게 하여 자는 동안에도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준다.

한민족은 불을 잘 다루어 하늘로 올라가는 불을 고래 속을 기어 들어가게 하여 결국 불을 밟고 서고, 불을 깔고 앉고 불을 베고 잘 수 있는 구들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또 아궁이에서 구새까지 불(열)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구들구조로 열이 오랫동안 구들에 머물게 하여 구들을 달궈 불을 넣지 않는 시간에도 구들을 늘 따뜻하게 하는 축열 기술과 방열 기술로 인체의 하부에서 인체를 가온하는 가장 과학적이며 위생적인 난방을 한다.

두한족열(頭寒足熱)이 인체의 온도의 이상적인 상태가 바람직한 것으로서 추운 곳에서 방으로 들어와 손과 발을 아랫목 따뜻한 이불 속에 담그면 따뜻한 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좋다.

이런 따뜻함이 마스한 마음씨를 만들고 그것이 우리 민족의 우수한 자질을 갖게 하고 우수한 민족문화로 꽃피우게 하였으리라 믿어진다.

아랫목은 구들의 가장 중요한 자리로서 집안 주인의 바느질, 다리미질 등은 물론 아기를 기르는 자리이고, 식구들이 감기나 배가 아플 때는 찜질하는 자리이며, 밥그릇을 놓고 차림이불로 감싸 음식이 식지 않도록 해주는 중요한 곳이다.

아궁이에 앉아 불을 넣게 되면 인체의 복부에 원적외선이 복사되어 암이나 냉이 치료된다. 숯불로 된장찌개 끓이기, 밤, 감자, 고구마, 옥수수 등의 구이를 할 수 있고, 숯불을 화로에 담아 방을 따뜻이 하며 불씨를 잘 보존하는 등 쓰임새가 많다.

우리가 외부와 교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대륙의 힘을 배제하고 온갖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힘은 우수한 우리 문화의 덕이다. 근세에 개방되어



세계 문물과 접촉한 결과 우리의 문화가 더욱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그 중에서 으뜸이 구들난방 방법이다. 구들이 우수한 것으로 증명되는 것은 축열방법과 바닥난방 방법, 전면(全面), 저온도 난방방법, 기체직접 난방 방법 등을 최근들어 오일 쇼크로 서양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이러한 난방방법은 우리들의 조상이 아득히 먼 옛날 이미 개발하여 전승되어 우리가 사용해 오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바닥난방, 축열난방의 종주국이다.

일본은 만주를 강점하고 칸을 연구하였다. 조선 총독부가 그들의 필요에 따라 구들을 연구하였다. 수년 전부터 일본과 서독 등 선진국들에서 바닥난방과 축열방식에 관하여 연구하고 기업화 하여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아직은 우리 구들에 못미치고 있다. 그러나 멀지 않은 장래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뺄까봐 걱정된다.

종래 전승된 구들은 개량 발전, 현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구나 연료문제, 불을 넣지 않을 때 아궁이에서 찬 공기가 들어가 구들의 열을 대기로 빼내는 열 손실 방지문제, 연소로 발생하는 매연의 공해 문제, 시공의 과학화 등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구들이 우리 문화를 만들었으므로 이제는 그 문화로 구들을 발전시킬 때가 왔다고 본다. 앞으로

우수한 구들난방이 이룩되어 더욱 우리 문화를 발전시켜 세계화할 때가 될 것으로 믿는다.

우리 조상의 지혜를 우리 세대에 남에게 빼앗기는 일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까지 구들이 폐쇄적이었으므로 앞으로 그것을 탈피하고 개방하여 방구들에서 집구들로 집구들에서 빌딩, 공장, 체육관, 보온농장, 선박, 비행기 등 난방이 필요한 모든 건조물에 확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 발전, 현대화시켜야 할 것이다.

맺음말

구들은 부전자전으로 어깨 너머로 전수되어 지역마다 사람마다 구조, 형식 및 효과가 상이하다. 또 각급 학교는 물론 사회적으로 교육된 바도 없어 공부하고 연구한 성과도 거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의학, 한의학, 위생학, 공학 문화 등 관련된 각 분야의 학자들과 협력하여 연구·기술개발하고 현대 과학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소 늦기는 하였으나 점증하고 있는 세계 바닥난방 수요에 주요 공급국이 되므로써 구들 종주국의 체면을 세우고 민족문화를 수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참고문헌

1. 현규환. 갯 및 온도의 위생학적 연구. 만주제국의대 위생학 교실. 1934년
2. 최영택. 구들. 고려서적. 1988년. 교보문고 판매 중
3. 최영택. 제9회 에너지 절약기술 워크숍 논문집. 에너지기술연구소. 1993년
4. 김남웅. 하이퍼스트의 발전과정에 관한 고찰.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23호 별책
5. 오영인, 송용식. 전통적 주거 문화로서의 온돌. 주공주택 48호. 1987년